

유성엽, 평화당 대표 출마 공식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열어

경제·민생·민주정당 등 당 정체성·비전 제시 '야무진 대표' 포부 밝혀

유성엽(민주평화당, 정읍·고창) 의원이 1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평화당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유 의원은 "경제가 이렇게 심상치 않다"며,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와 이에 따른 정부여당의 정치적 난관에 대비해, 평화당이 실력 있는 대안 정당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선거의 참패와 1%대의 낮은 지지율, 호남 광역단체장 후보조차도 못 낸 것이 민주평화당의 현실"이라면서,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경제정당, 민생정당, 민주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변화의 필요성과 당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개혁입법세력 연대의 주도적 추진을 통한 대한민국 정치사회의 개혁 ▲당의 주요 자산인 박지원 정동영 친정배의 역량을 빌려 남북관계 조율사 역할 ▲상설 특별위원회인 '민생경제 해결사 TF' 설치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투명한 회계와 당내 인사, 그리고 365일 국민정책 수렴과 정기적 민생 탐방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평화당은 이제 새로운 공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야무진 당대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3선동안 민주당 텃밭에서 무소속 2번, 국민의당 1번으로 당

선된 저력과, 이번 지방선거 참패 속에서도 지역구인 고창군수를 확보한 것에 대한 행운"을 강조하며 당대표로서의 능력을 과렷했다. 또한 "국가경제의 경영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공부해 왔다"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려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부했다. 유 의원은 "먹고사는 문제에는 1등인 평화당, 오로지 민생만 생각하는 평화당, 당원과 국민 모두의 평화당"을 만들어 21대 원내 제1당, 수권정당을 만들어 가겠다는 야심도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제11대 도의회 간행물편집위 위촉

김이재·이병철 의원 등 2년간 의회간행물 심의

제11대 전북도의회가 16일 전반기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도의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의 편집과 간행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게재할 자료 확보와 원고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전반기 간행물편집위원회는 위원장에 농산업경제위원회 황영석 의원(김제2)이 선출됐으며 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의원(전주4), 환경복지위원회 이병철 의원(전주

5),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의원(남원1), 교육위원회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위촉됐다. 황영석 위원장은 "도의회 소식지는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공간"이라며 "도의회와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는 한편 불거림과 읽을거리 등 알찬 내용으로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행물편집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마다 발간하는 의회소식지 '전북의 소리' 발간심사와 의정백서 및 기타 의회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심의하게 된다. /김진성 기자

"윤리·행동강령 준수하는 도의회 구현"

제11대 도의회 윤리특위 개최... 위원장에 김정수 의원 선임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제11대 제1기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정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2·사진 왼쪽)을 제11대 1기 위원장으로,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2·사진)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 및 주요활동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과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등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회부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심사 처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김정수 윤리위원장은 "윤리특위 위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의원 선서할 때와 같은 초심의 마음이 되기를 당부하며,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역할 및 주요활동에 대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김진성 기자

김해영 의원, 최고위원 경선 출마

최초인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이 돼 민주당의 세대혁신을 준비하겠다"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이 자리에 전재수, 윤준호, 김경호 의원이 참석해 지원 사격을 했다.

김 의원은 "2년 전 전국청년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요구 역시 '청년 정치 참여 확대'였다"면서 "그런데 정치적 약자인 청년을 중앙정치에서 대변하던 청년최고위원제도가 폐지됐다. 많은 청년 당원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청년최고위원 제도는 없어졌지만, 저는 청년을 대표해 최고위원에 출마하고자 한다. 어느 조직이든 새로운 세대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그 조직의 미래는 없다"면서 "당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세대가 활동할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文, 계엄령 관련 모든 문서 즉시 제출 지시

"특수단 수사 별개로 군 통수권자로서 확인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과거 정부에서 작성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대비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그동안 오고 갔던 모든 문서와 보고사항을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인도 순방기간 동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에 대해 보고받고 특별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일주일 만에 특별지시를 추가로 내린 것은 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에서 엄

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4월30일 청와대 참모진이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회의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관련 문건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배경에 대해 "이 문건만으로 판단하기가 부족한 점이 있고, 오늘 이런 지시사항을 내린 건 그 문건에 대해서 보다 명확히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더 근거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내

용이 '실제로 실행이 됐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내용을 파악해보겠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송 장관과의 회의에 함께 참석한 청와대 참모진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은 당시 기무사 개혁과 관련된 회의를 했을 뿐 회의석상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과 관련된 질의는 없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의겸 대변인이 계엄령 문건을 청와대가 접수한 시점에 대해 "두부 자르듯 할 수 없다"고 했던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당시 참석했던 청와대 참모진들로서는 국방부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그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